2018년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성주군의회

목 차

Ⅰ. 연수개요 3

1 연수목적 3

2 연수국가 3

3 연수기간 3

4 연수인원 3

Ⅱ. 연수일정 4

Ⅲ. 연수국 현황 6

Ⅳ. 주요 방문지 9

Ⅴ. 연수후기 21

Ⅰ 연 수 개 요

1. 연수목적

○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해외의 다양한 우수시책들에 대한 견학 및 체험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의 관광정책 등 우수한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

2. 연수국가 :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3. 연수기간 : 2018. 11. 8(목) ~ 11. 15(목) 【6박 8일】

4. 연수인원 : 9명(의원 7, 수행직원 2)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계	9명		
성주군의회	의 장	구 교 강	
	부 의 장	김 영 래	
	의 원	배 재 만	
	의 원	김 경 호	
	의 원	김 성 우	
	의 원	도 희 재	
	의 원	전 수 곤	
	의 원	황 숙 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 한 귀	수행직원
	주 무 관	김 상 우	〃

Ⅱ 연 수 일 정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제1일차 11월8일 (목)	인 천 암스테르담	KE925	14:30 18:4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암스테르담 향발** (비행시간 약12시간10분 소요) 암스테르담 도착 후 호텔 투숙
				HOTEL : NH 암스테르담 센터 또는 동급
제2일차 11월9일 (금)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차 량		호텔 조식 ▶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 -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담 광장 견학 - 우수사례 자료 수집 등 ▶ **관광콘텐츠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NH 암스테르담 센터 또는 동급
제3일차 11월10일 (토)	암스테르담 헤이그 델프트 앤트워프 (벨기에)	차 량		호텔 조식 **[하를렘]으로 이동** ▶ **네덜란드 하르렘 시청사 방문** - 행정기관의 역할, 정책 수립 등 조사 - 문화분야 및 예술분야 정책 추진방향 등 벤치마킹 - 우수사례 자료 수집 등 **[헤이그]로 이동** ▶ **국제 정치의 중심지 헤이그 탐방** - 헤이그 특사 사건의 도시 탐방 및 자료 수집 - 이준 열사 평화박물관 방문 **[델프트] 경유** ▶ **운하와 도자기산업이 발달한 델프트 견학, 자료 수집** **[앤트워프]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RAMADA PLAZA 또는 동급
제4일차 11월11일 (일)	앤트워프 브뤼헤 겐트 브뤼셀	차 량		호텔 조식 ▶ **벨기에 마르크트 시청사 방문** - 주요정책 추진방향 등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자료 수집 **[브뤼헤]로 이동** ▶ **국제적인 항구도시의 관광콘텐츠 우수사례 벤치마킹** -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우수사례 자료 수집 **[겐트] 경유 [브뤼셀]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베스트 웨스턴 포스트 호텔 또는 동급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제5일차 11월12일 (월)	브뤼셀	차 량		호텔 조식 **▶ 브뤼셀 시청사 방문** - 사회보장제도 운영시스템 비교분석 - 기타 주요 정책에 관한 상호토론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베스트 웨스턴 포스트 호텔 또는 동급
제6일차 11월13일 (화)	브뤼셀 런던 (영국)	유로스타 차 량		호텔 조식 **▶ 브뤼셀 유로스타 / 런던 향발** 런던 도착 후 중식 **▶ 영국 국회의사당 방문** - 국회 구성, 국회의원의 역할, 회기운영 등 조사 - 의정활동(위원회활동) 방향 등 청취 - 우수사례 자료 수집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PREMIER INN 호텔 또는 동급
제7일차 11월14일 (수)	런던 윈저 런던	차 량 KE908	08:30 18:50	호텔 조식 **[윈저]로 이동** **▶ 영국 왕실 문화 탐방 및 자료수집** **[런던]으로 이동** **▶ 박물관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박물관 견학 **[런던 공항]으로 이동** 런던 공항 출발 / 인천 향발
제8일차 11월15일 (목)	인천	KE908	14: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현황

1. 네덜란드 소개

▶ 개요 : 네덜란드는 남한의 3분의 1에 불과한 면적과 겨우 1,6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을 상회하는 작지만 당차고 알뜰한 선진복지국가의 하나이다. 해면이 육지보다 높아 수많은 인공 저수지와 각종 댐을 건설, 수백년간 ′물′과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듣기에 진부할 정도이지만, 신이 세상을 창조했으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과 같이 이들이 가혹한 자연환경과 싸워온 그간의 역사적 과정은 하나의 서사시에 비유될 정도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 수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 인구 : 약 1,600만명
◈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다.(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3.30-10.26 사이엔 7시간 늦다)
◈ 통화 : 유로(euro) 1유로 = 약 1,250원
◈ 면적 : 41,548㎢ (내해수면 제외시 37,305㎢, 한반도의 약 1/5)
◈ 주요도시 : 헤이그, 로테르담, 유트레히트
◈ 주요민족 및 언어 : 화란민족(게르만족의 1개 분파) / 화란어(영어,불어,독일어 통용)
◈ 종교 : 카톨릭(32%), 네덜란드 개신교(17%), 비종파(38%)

2. 벨기에 소개

▶ 개요 : 정식명칭은 벨기에왕국(Kingdom of Belgium)이며, 영어로는 벨지움(Belgium), 프랑스어로는 벨지크(Belgique), 네덜란드어로는 벨히어(Belgie), 독일어로는 벨기엔(Belgien)이라고 한다. 북부와 동부는 네덜란드·독일, 남쪽은 룩셈부르크, 서쪽은 프랑스와 접하고 북서부는 북해(北海)에 면한다. 북쪽의 네덜란드와는 지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어 이 두 나라를 저지국(The Low Countri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로,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대를 형성한다. 1948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넬룩스(Benelux)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였다. 행정구역은 10개주(province/provincie), 3개구(region/gewesten)로 이루어져 있다.

◈ 수도 : 브뤼셀
◈ 인구 : 약 11,491,346명
◈ 시차 : 한국보다 8시간 늦다.(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3.30-10.26 사이엔 7시간 늦다)
◈ 통화 : 유로(euro) 1유로 = 약 1,360원
◈ 면적 : 30,528㎢ 세계141위
◈ 주요도시 : 브뤼셀, 브뤼헤,
◈ 주요민족 및 언어 : 플라망족(58%), 왈론족(31%), 혼혈 및 기타(11%),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 종교 : 로마가톨릭교(75%), 기타(25%)

3. 영국 소개

▶ 개 요 : 유럽 대륙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로, 그레이트브리튼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아일랜드섬 북쪽의 북(北)아일랜드로 이루어진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립될 때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음으로써 현재의 연합왕국이 되었다.

◈ 국 명 :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위 치 : 서부 유럽(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 면 적 : 243,610km2(한반도의 1.1배)

◈ 기 후 : 서안/온대 해양성

◈ 수 도 : 런던(London)

◈ 인 구 : 6,339만 명

◈ 언 어 : 영어(공용어), 웨일즈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 종 교 : 성공회(50%), 개신교(30%), 로마가톨릭(11%), 기타(9%)

◈ 건국일 : 10세기 통일국가 유지

◈ 정부 형태 : 입헌군주제, 의회정치제

◈ 참고사항 : World Economic Forum(WEF) 조사결과 국가별 관광경쟁력 5위

Ⅳ 주요 방문지

1 네덜란드

◆ 목 적 : 문화, 관광정책 등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자 : 2018. 11. 8(목) ~ 11. 10(토)

❑ 암스테르담

○ 부채꼴로 이어진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따라 걷다 보면 고흐의 예술 세계와 황금시대의 자취를 만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서북쪽에 있는 암스테르담은 13세기에 어민들이 암스텔 강에 둑을 설치하고 정착하게 된 것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암스텔(Amstel) 강의 둑'이란 뜻이다. 해양 무역의 황금기인 17세기 때부터 부채꼴 모양의 운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운하를 연결하는 500여 개의 다리가 볼만하며 세계적인 무역, 관광의 도시이다. 또한 유럽 대륙의 관문으로 매일 5~6개 선의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다이아몬드 연마, 항공기 제작, 기계, 조선, 화학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다.

〈 풍차마을 잔세스칸스 〉

○ 풍차마을로 널리 알려진 잔세스칸스(Zaanse Schans)는 암스테르담 북쪽 15km 지점의 잔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화나라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17~18세기의 목조 가옥과 크고 작은 풍차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잔 강변을 끼고 풍차 4기가 돌고 있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700여 개의 풍차가 있었지만 기계화로 인하여 현재는 관광용으로 단 4개만이 남아있으며 풍차 외에도 나막신과 치즈를 만드는 곳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박물관, 상점, 풍차를 구경하다 보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일하는지 볼 수 있다.

〈 빈센트 반고흐 미술관 〉

○ 200점에 달하는 고흐의 회화 작품과 500여 점의 데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1973년에 개관한 4층 건물의 박물관이다. 작품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1층은 1887-1888년까지의 작품, 2층은 1880-1890년의 작품, 3층은 데생, 4층은 테마별 작품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흐와 동시대를 풍미하던 화가들의 작품 50여 점과 고흐의 동생 테오와의 서간 등이 600여 점 소장되어 있으며, 안내인 동반의 단체 관람은 허가되지 않다.

❑ 하를렘

〈 시청사 〉

○ 스파르너 강기슭에 위치한 하를렘은 네덜란드의 수도보다 더 먼저 건설된 도시이다. 직물업과 양조 등으로 번영하며 17세기 황금시대를 보냈던 도시로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스파르너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17세기의 번영을 느낄 수 있으며, 마르크트 광장을 중심으로 노천카페와 노천시장, 성 바보 교회 등 다양한 볼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를렘은 뉴욕의 할렘 지역의 어원이 되었으며, 뉴욕 할렘 지역은 이 지역에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헤이그

○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왕족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당, 정부 관청 등이 위치하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제3의 도시이지만 평화궁(국제 사법 재판소)와 각 국가의 대사관, 국회 의사당 등 국제 정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제국 시기 열렸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고종이 파견했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헤이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도시 곳곳에 위치한 미술관, 정원, 궁전 등에서 네덜란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마우리츠하위스 〉

○ 네덜란드의 왕립 미술관인 '마우리츠하위스'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총독 나사우가의 사택으로 건설되었던 건물로 르네상스 풍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다. 현재는 왕립 미술관으로 규모는 작지만 화려한 내부 장식과 연못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컬렉션으로 네덜란드 플랑드르 회화 작품 등의 마니아들이 찾는 성지이기도 하다. 특히, 플랑드르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의 대표작 '니콜라스 튈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와 '자화상', 페르메이르의 명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전시되어 있다.

2		벨 기 에

◆ 목　　적 : 문화, 관광정책 등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자 : 2018. 11. 8(목) ~ 11. 10(토)

❑ 앤트워프

〈 앤트워프 대성당 〉

○ 성모마리아대성당이라고도 부른다. 벨기에 최대의 고딕 양식 성당으로,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미술을 자랑하는 역사적인 도시 안트베르펜의 구시가지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성당이자 안트베르펜 주교가 있는 중심 성당이며, 벨기에 최고의 첨탑(123m)을 가진 성당이기도 하다.

○ 성당 안에는 안트베르펜이 고향인 플랑드르파의 거장 P.P. 루벤스의 명작 《십자가에서 내리심 Descent from the Cross》과 《십자가에서 내리심 Deposition》, 《성모승천 Assumption》 등 5개 걸작품이 장식되어 있다. 위다의 소설 《플랜더스의 개 A Dog of Flanders》에서 화가를 꿈꾸던 주인공 네로가 충견 파트라슈와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다.

〈 루벤스의 집 〉

○ 루벤스의 집은 미술가 피터 폴 루벤스가 1611년 Wapper에 있는 건물을 사서 집과 작업실로 쓰던 곳이다. 루벤스의 집은 내부에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다. 정원과 플랑드르-이탈리안 르네상스 가든 사이의 바로크 스타일의 현관은 루벤스 자신이 디자인한 것이다.루벤스가 사망(1640)한 후 이 건물은 소유주가 여러 번에 걸쳐 바뀌었고 시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각각 훼손된 상태의 이 건물을 사들이려 시도하였으나 1937년에 이르러서야 거의 붕괴직전의 상태에서 압수하였다. 복구작업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석조장식들 또한 당시의 형태로 재 복구되었다.

❑ 브뤼헤

〈 베긴회 수녀원과 미망인촌 〉

○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 브뤼헤는 북쪽의 베니스라고도 불린다. 중세에는 국제적인 항구가 운하로 연결되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운하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도보 여행을 즐겨야 진짜 구경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마켓 광장을 다니면서 중세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풍차와 운하 종탑들이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낸다. 또한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고싶을 정도로 달콤한 분위기의 마을이기도 하다.

○ 브뤼헤의 미망인 촌을 들어서자 베긴회 수도원으로 유명한 수도원과 미망인들이 손자수를 하여 연명하고 공동생활을 하던 모습이 연상되는 곳이다. 수많은 백조가 둥실둥실 떠있는 운하의 모습은 12~13세기 상업의 도시로서 번영을 누리던 모습이 떠오르며 브뤼헤의 상징이며 잘 살게 된 것을 바로 백조덕분이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다.

❑ 겐트

〈 그라슬레이거리 〉

○ 겐트는 9세기경 만들어진 도시로 13세기 무렵에는 옷감 무역으로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성을 비롯한 중세시절부터 내려온 건물들이 많으며, 그 중심에는 그라벤스틴(Gravensteen Castle)이 있습니다. 이 성은 800년 전에 플란더스 백작이 세웠으며, 후일 감옥을 거쳐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브뤼셀

○ 고풍스런 건축과 현대적 마천루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인 브뤼셀에는 고딕성당과 교회에서부터 우아한 왕궁의 전통적인 외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장식미술)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인 동시에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본부가 있는, 유럽 모든 나라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여러 행정관들과 유럽 공동 시장의 사무국원들로 가득차 있는 이 도시는 이로 인해 유명한 관광지로써의 분주한 분위기보다는, 역동성 있는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다분히 보여주기도 한다.

〈 오줌싸게동상 〉

○ 혹자는 예상보다 훨씬 작은 오줌싸개 동상에 대해 실망을 느낄지도 모른다. 브뤼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오줌싸개 동상은 1619년 제롬 뒤케노스에 의해 만들어 졌다. 꼬마 쥘리앙이라는 애칭으로 불릴만큼 브뤼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관광차 브뤼셀을 방문한 이들은 오줌싸개 동상이 얼마나 자주 옷을 갈아입는지 모를 것이다. 왕의 집(King's House), 그랑 팔라스,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쥘리앙의 의상은 미키마우스 복장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장 등을 포함해 600벌이 넘는다.

〈 브뤼셀 시청사 〉

○ 브뤼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랑 플라스 광장에 브뤼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바로 275피트 건물 꼭대기에 악을 물리치는 브뤼셀의 수도신인 성 미카엘의 구리동상이 서있는 브뤼셀 시청사다. 1402년부터 1455년까지 약 5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정성들여 고딕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각 방에는 색실로 아름다운 무늬를 짜넣은 직물류의 벽걸이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있다. 시청사의 오른쪽 맨 아래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여행의 도시 답게 여행정보센터가 있어 각종 공연물의 안내와 교외단체관광, 시내 지도, 숙박 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다.

〈 그랑 플라스 〉

○ 그랑 플라스(Grand Place)는 브뤼셀의 중심부이며 이 도시의 시작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에 하나인 이곳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의 경연장 같기도하다. 시청사의 고딕양식, 길드조합의 바로크양식, 르네상스양식 등 각종 화려한 건축기술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치 옥외극장과 같은 곳이다.

○ 일요일 아침 꽃시장이 이 곳에서 열리고 각종 새들이 지저귀는 새시장 또는 정치의 집회장이 되기도하며 재즈음악의 공연장이기도 하다.

3 영 국

◆ 목 적 : 문화, 관광정책 등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자 : 2018. 11. 8(목) ~ 11. 10(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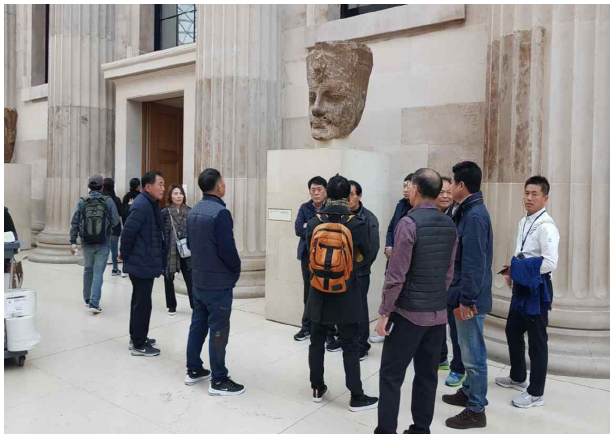
❑ 런던

○ 2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수도 런던은 1,600㎢의 면적에 8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유럽 최고의 도시이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런던은 영국의 무역, 경제, 정부의 중심인 동시에 유럽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필수 관광지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유럽 여행을 시작하는 관문 도시로 이곳 런던에서 선택한다.

○ 1인당 녹지율이 세계 제일로 꼽힐 만큼 도시 곳곳에서 녹지와 공원을 발견할 수 있다. 런던은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특징과 잉글랜드적인 특징이 흥미롭게 복합되어 있어 이색적이며, 특히 왕조시대의 전통적인 의식에서부터 쇼핑, 오락 등 현대적인 낭만을 모두 갖춘 곳이다.

〈 대영박물관 〉

○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 박물관은 런던 블룸즈베리 러셀 광장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박물관이며, 제국주의(대영 제국) 시대에 약탈한 문화재는 물론 전성기 때의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대영박물관은 언제나 관람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것이 좋다.



〈 코츠월즈 (Cotswolds) 〉

○ 잉글랜드 남서부에 있는 구릉지대로, 숲과 목초지로 둘러싸인 아기자기하고 영국스러운 마을들과 전원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며, 작은 마을 100여 개를 통틀어 코츠월즈(Cotsworlds)라고 한다. 대표적인 마을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바이버리(Bibury)', '버튼 온 더 워터(Bourton on the Water)', '스토우 온 더 월드(Stow on the World)' 등이 있다

❑ 옥스포드

○ 런던 북서쪽 템즈강 상류에 위치한 옥스포드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도시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옥스포드라는 이름은 Ox(소)+ford(개울) 이란 말이 합쳐진 것으로, '소들의 개울'이라는 뜻으로 과거 양털의 집산지였던 옥스포드는 12세기부터 영국의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13세기에 최초의 칼리지가 창립되면서 오늘날의 대학도시로 발전했다.

❑ 원저(윈저성)

○ 윈저성은 900년간 잉글랜드 왕의 성으로 사용되었다. 과거 노르만 왕조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런던 서쪽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한 것을 시작으로, 에드워드 4세에 의해 증축되고, 헨리 8세에 의해 완성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현재는 왕실의 묘지나 여왕의 개인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보통 윈저성에는 영국 국기가 걸려있지만, 여왕이 머물 때는 왕실 기로 바뀐다.

V 연 수 후 기

이번 연수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의 주요기관과 관광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우수한 제도와 정책들을 견학·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와 시책 발굴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구교강 의장〉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써 위상이 높아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정책의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장기적으로 면밀히 수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의회의 역량을 높여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의견 수렴, 갈등조정 등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영래 부의장〉

· 이번에 방문한 도시의 특징은 대부분이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잘 보존하고 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와의 조화로운 접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이는 관광산업으로 연결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우리군도 우리지역 특징을 살리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관광콘텐츠가 필요하며 우리의 정체성(문화와 역사)에 혼을 불어 넣어야 한다.

〈배재만 의원〉

· 네덜란드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자전거 천국'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신호등, 열차와 버스의 적재 시설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이 자전거를 배려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적이며 건강증진에 도움되는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 자전거 시스템 도입은 검토해 볼 만하다.

〈김경호 의원〉

· 유럽의 도시들은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재와 공유하고 있고 광고간판은 절약을 위하여 작으면서도 건물에 어울리게 부착되어 있으며, 도시가 전반적으로 화려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군도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무질서한 광고물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우 의원〉

· 벨기에 브뤼셀하면 떠오르는게 오줌싸게 동상이다. 보잘 것 없지만 전해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시청광장에서 오줌싸게 동상까지 이어지는 골목에는 지역특산품(초코렛, 와플, 벨기에 기념품 등)을 집중 배치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킨점은 우리군에서도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도희재 의원〉

· 유럽 주요도시의 관광 인프라 및 활성화 사례를 견학함으로써 느낀것은 국비등을 받아 무분별적으로 새롭게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에 관광객이 기억하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랜드마크, 스토리텔링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군만의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수곤 의원〉

우리지역 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다음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지, 어떻게 물려 줄 것인지 고민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것, 편의 위주보다는 기존의 것, 우리의 것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반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숙희 의원〉

우리군에서 어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 공모, 유치룰 위해 유사한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우리 고유의 정체성 없이 그냥 따라가기 사업을 할 뿐, 결국 실패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만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